"日 총리가 공식 사과하라"

美 하원 '종군위안부 결의안' 다시 제출

펠로시 의장도 지지…통과 가능성 커

미 하원 의원들이 31일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종군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일본 정부가 명백하고 모호하지 않게 공식 인정하고 사과하고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일본계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7명이 공동서명한 결의안은 특히 "이 공식 사과는 일본 총리가 총리 자격으로 공개성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결의안은 또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는 주장들을 일본 정부가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배척"할 것과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 이 가공할 범죄행위에 관해 교육"하고 종군위안부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를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이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총리 명의 성명 발표 등을 촉구한 것은 지난해 9월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채택됐으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결의안이 "역사적 책임을 모호하지 않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만 말한 것에 비해 훨씬 강력한 내용이다.

이 결의안은 특히 미 의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부각된 후 일본 정부와 자민당을 비롯해 우파 사이에서 1993년 일본 정부의 강요와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는 일본 정부 입장을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성명을 철회, 부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을 적시하면서 강력 비판했다.

혼다 의원은 결의안과 함께 제출한 발언록에서, 자신이 일본계이면서도 이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는 주요 이유의 하나로 제2차 대전 당시 어린 나이에 미국에 살면서도 일본계라는 이유만으로 미 정부에 의해 강제수용소에 갇혔던 경험을 들고 "나는 우리가 과거를 망각해선 안되며, 정부의 행동을 통한 화해가 영속적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 안다"고 말했다.

그는 낸시 펠로시 의장을 향해 종군위안부의 "멍에를 안고 살아가는 얼마 안되는 생존자들이 지금 스러져 가고 있다"며 "우리는 이 결의를 통해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얼마간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인 톰 랜토스 외교위원장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일본은 마크 폴리 전 하원의장을 로비스트로 고용하는 등 이 결의안의 채택을 막기 위한 대미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연합뉴스

"너나 걱정 하세요" 北 휩쓰는 韓流 열풍

이순신 등 한국 드라마 안보면 '왕따'

당국, 조직 총동원 확산 차단 골머리

북한 사회 내에서도 한류바람이 거세게 불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일 "최근 남한의 영화와 드라마 등이 대거 유입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를 보지 않으면 이른바 '왕따' 취급을 당한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평양 등에서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등장하는 대사인 '너나 잘하세요'를 변형한 '너나 걱정하세요'라는 말이 유행어로 번지고 있으며 '가을동화'나 '불멸의 이순신'과 같은 드라마도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와 하나원이 새터민 교육생 30여명을 상대로 면담 조사를 실시해 작년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남한 가요와 드라마는 평양뿐만 아니라 개성이나 남포, 함경북도 등 국경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배용준, 장동건 등 남한 배우의 인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비디오테이프나 CD 등을 국경을 드나드는 여행자 등을 통해 구입하는 것으로 당시 조사에서 파악됐다.

최근에는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과 패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앞머리를 삐죽삐죽 내린 이른바 '칼머리'가 유행이고 통을 좁게 해 다리에 달라붙는 이른바 '맘보바지'를 여성들이 입은 모습도 자주 목격된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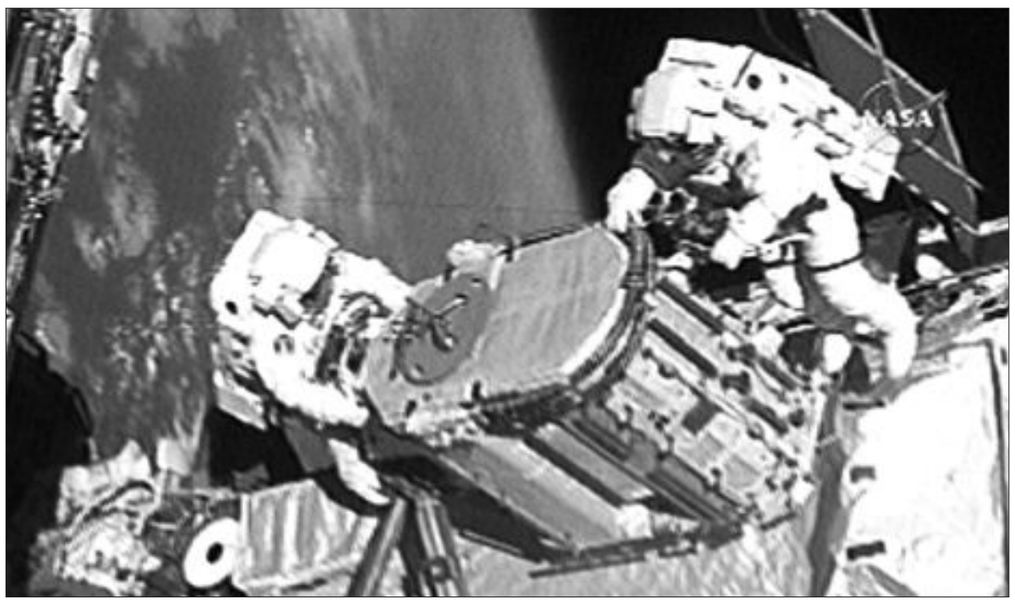
이처럼 한류가 북한 사회내에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자 북한 당국은 당·군·청년 조직을 총동원해 단속에 적극 나서는 한편 '외부의 심리 모략전을 차단하고 이색 생활풍조의 유입을 경계하자'는 취지의 대민 선전을 강화하는 등 사상 재무장을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은 사회 저변에 변화 욕구가 증대될수록 체제균열 요인 또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경공업 투자 증대에 나서는 등 민생 안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6자 회담 참가국들 외무장관 회담 추진

오는 8일 베이징에서 재개되는 북핵 6자회담에서 핵폐기를 향한 구체적 조치 등 진전이 있을 경우 6개국이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6자회담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자는 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각국도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회담 진전에 맞춰 외무장관 차원의 회담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도쿄=연합뉴스



우주작업하는 ISS 우주인들 인도계 여성 우주비행사 수니타 윌리엄스(왼쪽)와 미국인 마이클 로페즈 알레그리아가 지난달 31일 국제우주정거장(ISS) 바깥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미항공우주국(NASA) TV가 지구를 배경으로 촬영했다. /로이터=연합뉴스

"美, 이라크 정책 실패 對北수교로 만회 노려"

지난달 평양을 방문한 일본의 야마사키 다쿠 전 자민당 부총재는 지난달 31일 미·북 관계와 관련, 미국이 이라크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과 국교수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야마사키 전 부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부시 정권은 이라크에서 실패함으로써 후세에 내놓을 게 아무 것도 없게 됐다. 틀림없이 만회에 나서 (북한과) 국교수립까지 가지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화성 얼음바닷속, 생명체 살 최적지"

英 연구진 "원시 미생물 함유" 가능성 주장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곳은 얼어붙은 바다 속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영국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UCL) 연구진은 화성 표면 사진에서 발견된 얼어붙은 바다는 화성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최적지라고 지구물리학 연구지 최신호에 발표했다.

유럽우주국(ESA)의 화성 탐사선 마스 익스프레스호가 지난 2005년 말 화산이 많은 적도 지역 '엘리슘'을 촬영한 사진에서 발견된 북해 크기의 이 얼음바다는 먼지층으로 덮여 있으나 그 밑에는 수천m 깊이의 순수한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들은 약 500만년 전 얼어붙은 이 물이 지각 깊이 갈라진 틈에서 솟아 올라 원시 미생물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中, 18개 학교 이름에도 '창바이산'

〈長白山〉

지린성 초·중·고 교명 개명…동북공정 노골화

아시아로 중계된 제6회 창춘(長春)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백두산(중국명 창바이산)을 배경으로 한 공연을 선보였던 중국이 초·중·고교의 학교 이름까지 '창바이산(長白山)'을 붙여 개명한 것으로 밝혀져 백두산과 관련된 중국측의 치밀한 움직임을 엿보게 하고 있다.

교명까지 바꾼 것은 자라나는 중국의 청소년들에게 백두산을 지우고 창바이산만 존재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중국 지린(吉林)성 직속 '창바이산(長白山)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관리위 소속 사회관리판공실은 지난 해 7월을 전후해 안투(安圖)현 얼다오(二道)진과 푸쑹(撫松)현 등에 소재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명 개명을 추진해 모두 18개 학교 이름에 '창바이산'을 붙여 교명을 바꿨다.

이에 따라 바이허(白河)임업국고급중학교(고등학교), 푸쑹현 제7고급중학교, 푸쑹현 제4고급중학교는 각각 창바이산 제1, 제2, 제3 고급중학교로 교명이 변경됐다.

또 안투현 얼다오진중학교, 바이허임업국초급중학교(중학교)는 창바이산보호개발구 츠베이(池北)구 제1중학교와 제2중학교로 각각 개명됐으며, 푸쑹현 둥강(東岡)중학교는 창바이산보호개발구 츠시(池書)구 제1초급중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에 교명이 바뀐 18개 초·중·고등학교에는 총 1만1천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교사 1천72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선양=연합뉴스

"김정남, 마카오에 3년째 거주"

홍콩 신문 보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35)이 마카오를 새로운 '집'으로 삼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적어도 3년 전부터 마카오를 근거지로 삼은 김정남은 이곳에 들르는 동안 페리터미널 근처의 최고급 호텔에 가명으로 투숙한 뒤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즐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남은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지난달 31일 이 호텔에서 체크아웃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또 그의 가족들이 김정남이 조용하게 물색한 마카오 콜로안섬에 위치한 한 대형빌라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정남이 둘째 부인과 아들 하나를 마카오에 두고 있다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지 한 소식통은 "10년 전부터 자주 마카오에 나타나 지금 그에겐 마카오가 새로운 집이라고 할 만하다"며 "김정남은 노출이 안 되는 이상 최대한 자유롭게 마카오 생활을 즐겼다"고 말했다. 그가 중국에서보다 마카오에서 훨씬 편안해하고 행복해했다는 것이 한 지인의 전언. /홍콩=연합뉴스